

아이종아 경남교육

2021. 11 vol.58



‘시험’이란 말에

긴장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11월 18일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입니다.
수능시험을 앞둔 여러분
“더 공부할 걸”, “너무 부담돼”라고 생각하진 않나요?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매 시험마다 긴장감에 흔들리거나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시험이 모든 걸 좌우하지도 않죠.
최선을 다했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생깁니다.
시험을 치를 때마다
여러분을 응원하는 누군가가 항상 있고
한층 단단해지는 스스로를 알게 된다면
쉽지는 않겠지만 잘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경남교육청이 모든 수험생에게 응원의 말을 전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잘해봅시다.”



Contents

2021. 11 vol.58



12



16



20



32



36



58

COVER STORY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한 달 앞두고 성지여고에서 열린 '대학 합격 점등식'에서 두 손을 모아 합격을 기원하는 고3 수험생의 표정에 간절함과 긴장감이 묻어난다



아이좋아 경남교육 앱 서비스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아이좋아 경남교육'을 검색 후 다운로드 하시면 앱으로 '아이좋아 경남교육'을 보실 수 있습니다.

06 특별기획

·소비 타월 유네스코 미래교육혁신국장 인터뷰

20 공감 특특

·진로와 직업

24 정책을 만나다

·경남대입정보센터 100% 활용하기

발행일 2021년 11월 1일
발행인 교육감 박종훈
발행처 경상남도교육청 (51430)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41 Tel. 055) 278-1784
편집인 홍보담당관 김태균
기획총괄 홍보담당사무관 문용희, 주무관 강동훈
기획·취재·편집·인쇄 경상남도교육청 홍보담당관, (주)경남신문사

12 꿈이 자라는 배움터

·도동초, 토요일사탐구교실 운영
·경남특수교육원 너나들이 체험공원

30 찰칵

·제50회 전국소년체전 경남선수단 투혼

32 내가 가꾸는 꿈

·신안초 관악부, 학교·지역사회가 만드는 하모니
·삼랑진고 아도니스-뱅크 동아리, 위안부 문제 알리기
·미래직업- 메타버스에서 만나는 새로운 직업세계

42 환경이야기

44 그림으로 보는 인문학

·피테르 브뤼헬-농부의 결혼식

46 건강 특특

·수험생 건강관리

48 우리가 알리는 도정 소식

·건강 - 코로나19 워드 코로나 대처

50 우리말 나들이

·토박이말 나들이
·일본어식 용어 이렇게 바뀌요

52 심표와 느낌표

·다독다독- '밝은 밤' 등
·친구야, 영화 보자- 원더
·문화가 있는 날
·여행- 함안 악양생태공원

62 의회는 지금

·경남도의회 이종호 의원 인터뷰

64 도란도란

·독자기고, 독자후기, 날말퀴즈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교육 방향



소비 타월
유네스코 미래교육혁신국장

·국제 연구 대학원(IHEID) 교수 역임
·모로코 국제고등교육기관(IHEM) 사회학 교수 역임

● 유네스코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유네스코는 세계 모든 국가의 대표들이 참여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정부 간의 기관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세계문화유산 때문에 유네스코 하면 문화와 관련된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네스코는 교육 분야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가들이 평생교육 정책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 직업 기술 교육, 고등교육, 비정규 교육 등 유아기부터 모든 수준의 교육을 포함합니다. 이 정책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고, 이것이야말로 교육의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지요.

기본적으로 경제적 혹은 문화적 또는 다른 어떠한 이유로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학생과 단체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특히 교육에 있어서 취약했던 소녀와 여성들에 중점을 둡니다.

두 번째로, 유네스코에는 보건교육, 세계시민교육,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영역은 우리의 태도와 가치, 타인과의 행동, 타인과의 관계, 환경과 관련돼 있습니다.

FUTURE



세 번째로는 조금 더 국제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국제적으로 모두를 위한 교육 보장이라는 공동 목표를 내용으로 하는 인천 선언 채택 이후로 우리는 교육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목표를 발전시켰습니다.

●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들의 일상생활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재택근무가 증가하고, 온라인을 통한 화상회의도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 현장도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등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데, 앞으로 교육 현장은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코로나19로 인해 작년 2, 3월 이후로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학교와 대학이 문을 닫았고 이러한 경험에서 우리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교육에 있어서 기술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이슈였는지 모릅니다. 교육의 핵심 문제가 아니었

죠. 그러나 이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맥락에서든 어떤 국가에서든 교육에 관해 이야기 할 때 기술을 빼놓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고,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기술과 인터넷, 디지털 학습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육의 디지털화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가속됐다고 볼 수 있죠. 우리는 보통 학교에 가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집에서는 숙제와 복습을 통해 학습했죠. 하지만 이제는 맞춤형 디지털 학습을 통해 우리는 수학, 과학, 언어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자신의 속도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즉, 집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것을 학습하고 학교에서 친구, 선생님과 소통하며 학습한 지식을 응용·활용하는 거죠.

원격 수업을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학습이 계속 이어질 수 있었지만 학교에서의 교육은 단순한 교육과정보다 더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학교는 교육 그 이상의 것이지요. 교과 과정을 통한 학습도 있겠지만 운동, 문화 활동 등 학교에서 다른 사람들과 할 수 있는 모든 활동들을 우리는 온라인으로는 할 수 없었습니다.



EDUCATION



우리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기술과 디지털 학습의 역할은 확실히 더 커지고 중요해질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등교 수업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시기에,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수업을 하는 것은 매우 소중한 시간일 것입니다.

한편으로 학교를 가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때문에 우리는 집에서 새로운 것들을 학습하고 개인 맞춤형 디지털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배우고 연습하며 습득할 수 있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속도로 학습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술이 필요하고 미래에는 이 기술들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 변화될 교육현장에 대하여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학교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배우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발전을 위한 과제들은 전 세계적인 것들을 다룹니다. 기후변화는 우리들의 삶과 기술적 변화를 포함한 전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이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교육과정에는 더욱더 많은 세계적 이슈들을 다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평가하는 방식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코로나19와 함께 더욱 가속화되며 디지털 능력의 중요성과 연결됐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활용능력 역시 중요합니다. 이러한 능력은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에게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작년 유네스코와 각 국가의 교육부가 함께한 설문조사에서 학교가 문을 닫았을 때, 원격 학습을 도입하는 부분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모든 학교가 적절한 디지털 능력의 부족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가난한 국가, 부유한 국가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들의 성공적인 디지털 학습과 원격 학습을 위한 중요 과제입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디지털 대전환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디지털 학습 기술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학생들을 평가함에서는 그러한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시험 중 인터넷에 접속하면 부정행위로 간주하죠.

우리의 미래가 점점 더 디지털화돼 가고, 지식자원으로 인터넷을 사용하지만, 평가할 때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건 이상하지 않은가요? 시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평가하는 방식을 바꾸면 우리가 가르치는 방식과 우리가 학습하는 방식 역시 변화합니다. 즉 우리가 변화하는 대로 교육 역시 필연적으로 바뀔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바뀔 것이며, 이는 학생들이 다르게 배울 수 있도록 가르치는 방법 역시 변화시킬 겁니다.

● 유네스코에서는 교육의 근간이 되는 요소에 코로나 이후 새로운 요소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그 요소가 무엇이며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두 가지 지속해야 할 기본원칙이 있지만, 그 원칙들 역시 변화하는 현실에 적응해야 합니다.

첫 번째 기본원칙으로는 인간을 위한 교육입니다. 누구나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누구나요.

이 기본원칙은 당연히 남겨져야 할 사항이지만 동시에 진화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교육받을 권리가 학교교육이나 정규 교육에 접근할 권리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진화와 함께 수명이 연장되고, 상황은 점점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은 우리 삶의 모든 단계에서 필요합니다. 어린이를 위한 유아교육부터 청소년과 직업을 가진 성인, 그리고 노인을 위한 교육까지 말이죠. 교육받을 권리는 모든 사람이 고등교육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학교와 훈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평생에 걸쳐서 있고, 정보에 대한 권리, 연결성에 대한 권리,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등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공공재로서의 교육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종 교육은 정부에서 제공해야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보통 학교 교육을 말하죠. 정부가 재정 지원을 통해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항상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변했고, 우리는 교육을 공공선/공동재로 생각해야 합니다. 교육은 모두의 공동 책임입니다. 부모, 지역공동체, 고용주, 협회들, 시민 사회, 정부까지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을 제공하는 정부뿐만 아니라, 모두가 이 집단적 노력에 참여해야 합니다. 교육의 시작

부터, 여기서 시작은 근본적인 부분부터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어떠한가, 우리 사회, 우리 국가, 우리 세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은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비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비전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교육은 미래를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교육은 우리가 미래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는 미래를 물어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 뒤 거꾸로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미래인지, 우리를 그 미래로 데려가기 위해 교육을 바꾸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미래를 위해 교육의 방향을 바꾸고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보존해야 할 교육의 장점은 무엇인지,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 교육은 무엇인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교육은 무엇인지,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 **국장님이 다시 학창시절로 돌아간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저는 공부하는 걸 즐겼던 것 같습니다. 또 오래된 것들을 좋아했었어요. 호기심이 많은 편이었고, 과학과 사회 특히 말로 수집되는 역사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미술 수업이나 프로젝트 활동 등을 재미있게 들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학창시절로 돌아간다면 다양한 것을 배우고, 발견할 수 있는 많은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다행스럽게도 어린 시절 가족여행을 많이 다녔고 미국, 말레이시아 등 다른 사회와 문화를 접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학교에서도 많은 것을 배우지만, 가족들로부터도, 살아가며 경험하는 것으로부터도 많은 것을 배웁니다.

교육이 더 나은 미래와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도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면 교육적 경험의 측면에서 이웃과 연대를 통하여 타인과의 관계에서 환원할 수 있는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경험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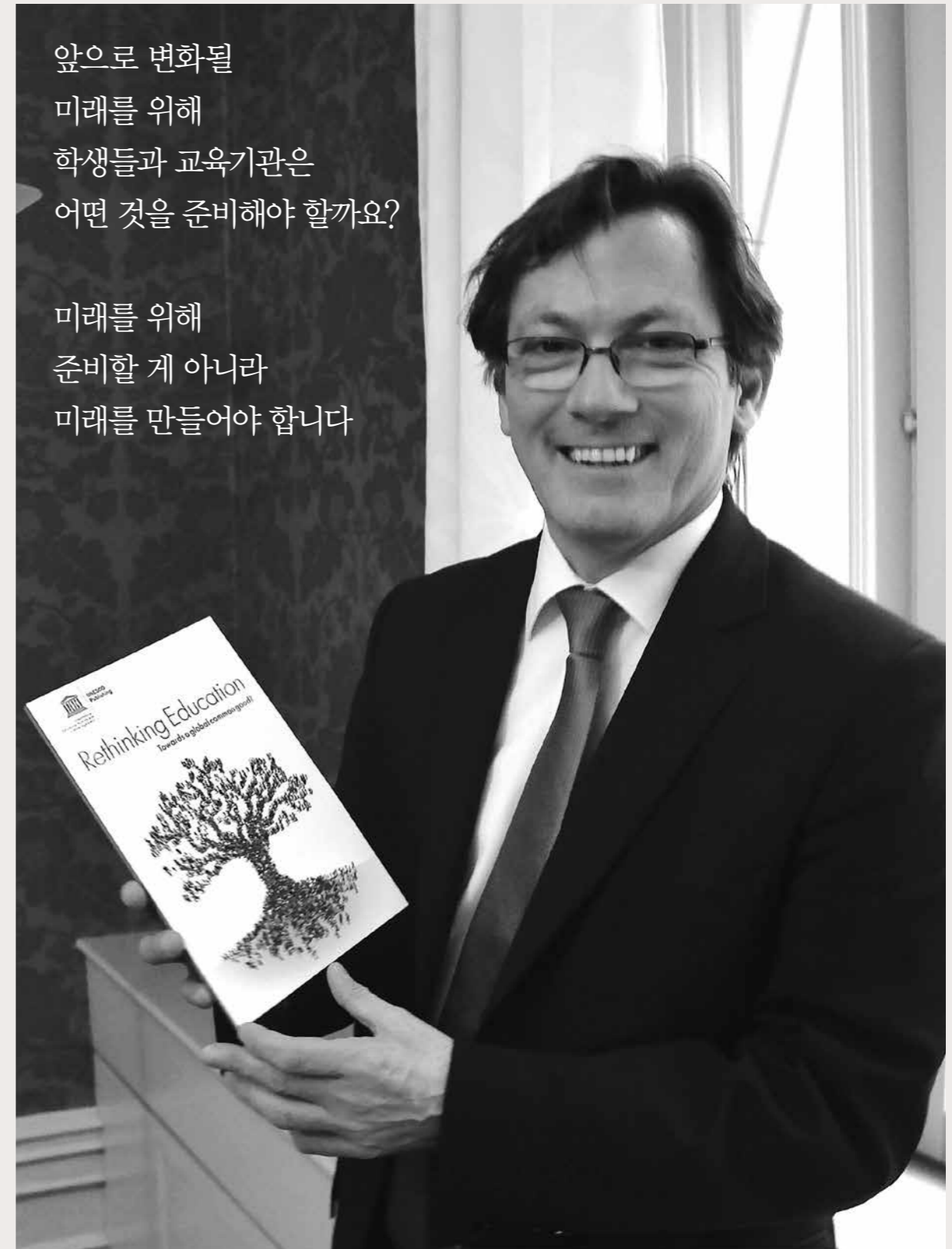
●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국장님의 바람은 무엇인가요?**

사실 한국의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학생에게 바라는 점이 있습니다. 정말 완전한 교육 경험, 여기서 '완전한'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목, 수업, 교과과정을 통해 매우 다양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경험입니다.

또한, 그것을 넘어 예술과 스포츠를 경험하고, 가족과 지역사회를 통한 교육적 경험을 하길 바랍니다.

'학습, 그 안에 숨겨진 보물(Learning: the treasure within)'라는 1996년 유네스코 보고서(들로르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우리는 모두 전체 인류의 일부분이라 말합니다. 모두 사회·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문화·언어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도 독특한 개인이며 하나의 분야 혹은 다른 것을 이룰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학계가 될 수도 있고, 예술 분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크거나 작거나 우리는 모두 가지고 있고 그것은 우리 안의 보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고 격려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앞으로 변화될
미래를 위해
학생들과 교육기관은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까요?

미래를 위해
준비할 게 아니라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학생 형, 언니와 함께하는 역사교실

진주 도동초 토요일사탐구교실

진주 도동초등학교에서는 토요일도 아이들의 목소리로 왁자지껄하다. 토요일사탐구교실이 열리기 때문이다. 9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 열리는 토요일사탐구교실은 경상국립대 역사동아리 '다정'의 형, 언니들이 선생님이로 참여한다. 대학생 선생님들이 진행하는 특별한 수업을 엿봤다.

왁자지껄 신나는 역사수업

“한반도 최초의 국가는 어디일까요?”

“고조선이요!”

선생님의 질문이 끝나기가 무섭게 학생들이 정답을 외치기 시작한다. 수업을 하고 있는 걸까? 게임을 하고 있는 걸까? 학생들은 재미난 놀이를 하듯 두 눈은 반짝인다. 학생들에게는 토요일사탐구교실이 최고의 수업이다. 대학생 형, 언니, 오빠들이 방문해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고, 재미있는 영상을 함께 감상한다.

찰흙을 이용해 비파형동검, 주먹도끼, 고인돌, 빗살무늬토기, 움집 등 선사시대 때 사용한 유적과 유물을 만들어 보기도 한다.



찰흙을 이용해 비파형동검, 주먹도끼 등 옛날 유물과 유적을 만들어 보았는데, 공부 아닌 재미있는 놀이 같았어요.

- 4학년 윤시아 -



도동초 학생들에게는 토요일사탐구교실이 공부가 아닌 신나는 놀이에 가깝다.

4학년 천정명 학생은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을 하지 못했는데, 다양한 체험들을 할 수 있어 시간이 아깝지 않은 기분이었어요”라며 웃었다.

역사로 우리가 하나임을 배워요

현재 토요일사탐구교실은 16명의 학생이 수업을 듣고 있다. 일반 학생은 물론 다문화 가정과 난민 가정의 학생 4명도 참여한다. 다문화 가정과 난민 가정의 자녀들은 한국인 부모 가정 자녀들과 다르게 한국문화가 낯설고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토요일사탐구교실을 통해 한국 역사에 대해 점차 알아가고,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기회도 얻는다. 또한 한국 가정의 학생들도 다양한 문화권 사람들과 활발하게 교류해온 역사와 한반도 땅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터를 잡고 살아갔던 사실에 대해 알아간다.

역사동아리 '다정'의 김영철 회장은 "지역 교육 봉사를 다니다 보면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학교생활 적응과 인식 개선을 위해 한국사 속의 다문화 요소들을 수업 과정에 담아 봤다"고 말했다.

한국사를 살펴보면 다문화적 요소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금관가야의 시조 김수로왕의 부인은 인도에서 이주해온 허황후이며, 고려 광종의 개혁을 도운 '쌍기'는 중국인이다. 태조 이성계를 도와 조선을 건국한 이지란은 여진족, 임진왜란 때 일본군과 맞서 싸운 김충선(일본명 사야가)은 일본인이다.

한국사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한국인만의 역사가 아닌 귀화인들과 함께 만들어간 역사임을 깨닫게 된다. 학생들은 역사공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두가 한국인임을 배워간다.

저는 동생이랑 같이
토요역사탐구교실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동생이 재미있어 해서 저도 더 재미있어요!
- 3학년 정다연 -



주말 돌봄교실 역할하기도

요즘 학생들은 부모와 보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주말에도 일을 하는 부모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온전히 주말을 혼자 시간을 보내야 하는 아이들이 늘어나지만 그동안 학생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토요역사탐구교실이 있어서다. 부모님의 빈자리를 대학생 형, 언니들이 채워준다. 함께 공부도 하고, 재미있는 놀이도 한다. 학생들에게 토요역사탐구교실은 소중한 추억거리를 선사하는 주말 돌봄교실이다.



3학년 때부터 역사를 좋아해 왔는데
토요역사탐구교실이 열려 기뻐요.
보드게임과 만들기를 통해
 역사를 배우니 새롭습니다.
- 4학년 김성원 -



암각화는 그냥 바람에 흩날린 자국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모여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모르는 사실을 알게 돼 흥미롭고,
내가 여기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 3학년 조준영 -





장애의 벽을 허무는 공간 '너나들이'

서로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

경남교육청 특수교육원 야외 체험공원

초등학교를 지나가다 보면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학생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학생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건 아니다. 장애학생들에게 운동장은 안전을 위협하는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학생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은 없는 걸까? 바로 '너나들이 체험공원'이라면 가능하다.

'너나들이 체험공원'은 경남교육청 특수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야외 체험시설로 다칠 염려 없이 안전하게 놀 수 있다고 한다. 장애학생들도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 '너나들이 체험공원'을 찾아가 봤다.



장소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대서길 77

장애학생도 신나게 뛰어노는 '너나들이 체험공원'

휠체어를 탄 한 학생이 안전모를 착용한 채 체험장 앞에서 차례를 기다린다. 긴장감으로 잔뜩 굳은 얼굴이지만 기대감으로 이따금씩 미소도 엿보인다. 담당 선생님과 함께 그물터널을 지나 1번 방에 도착한다. 1번 방은 휠체어를 탄 채 점프가 가능한 공간이다. 선생님과 함께 점프를 한다. 한 번, 두 번 횃수가 늘어날수록 얼굴은 웃음꽃이 핀다. 10여 분이 지나고 다른 방으로 이동하라는 방송이 나온다. 2번 방으로 이동하는 학생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긴장감을 찾아볼 수 없다. 기대감으로 가득 찬 얼굴이다.

순우리말로 '서로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너나들이 체험공원'은 올해 6월 9일 개장했으며, 야외 체험장과 야외 공원으로 이뤄져 있다. 야외 체험장은 총 7개의 방으로 구성돼 있는데 모두 트램펄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공간이다. 다 함께 뛰면서 놀기도 하고, 천장에 매달린 풍선을 때리기도 한다.

그리고 바닥에 붙은 과녁을 향해 점프해 물건을 넣어 보기도 한다. 야외 체험장에서는 격렬하게 놀아도 걱정이 없다. 천장과 바닥 모두 그물망으로 되어 있어 안전하게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야외 공원으로 이동해 휠체어 그네를 타거나 규칙을 정해 단체 놀이를 진행할 수도 있다. 너나들이 체험공원에서 학생들이 노는 모습은 평범한 키즈카페와 유사하다.

너나들이 체험공원은 장애를 허무는 공간

특수교육원 교사들은 '너나들이 체험공원'이 장애의 벽을 허물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한다.

하승우 교사는 “야외활동은 장애학생들에게도 당연한 권리이지만,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제한되어 왔다”며 “너나들이 체험공원으로 인해 이제라도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 다행이다. 구슬땀을 흘리며 트램펄린 위에서 뛰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더 이상 장애는 보이지 않는다. 그저 신나게 놀며 성장하고 있는 아이로만 보인다”고 밝혔다.



한승이 교사는 “일반 학교에서 외부 활동을 진행하려다 보면 안전상 문제 등 어려운 점들이 발생하는데, 너나들이 체험공원에서는 아무 제약 없이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자신감과 성취감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더 많은 학생에게 성취감을 주는 체험공간 되길

너나들이 체험공원은 개장 4개월 만에 322명의 학생(10월 6일 기준)이 다녀갔으며, 더 많은 학생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현재 너나들이는 연간 1,050명의 장애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다. 하지만 장애 학생들을 더 자주 만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험 일정을 조정하고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너나들이 체험공원’은 장애학생들도 충분히 야외활동을 할 수 있고, 또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에게 성취감과 자신감을 주는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진로·직업 선택

우리는 자라서
'무엇'으로 피어날까

학생들이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는 이유는 바로 '목표'를 위해서다.

목표의 방향을 '진로'라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우리 교육은 그 방향을 제대로 찾아주지 못했다.

그래서 10여 년 전부터 고교과정에 '진로와 직업' 수업을 개설해 학생들의 진로 선택을 돕고 있다.

수업을 통해 진로를 찾은 학생과 여전히 꿈을 찾고 있는 학생, 그리고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최희정 (창원여고 진로진학상담교사)	강민하 (창원여고 1)	태초애 (창원여고 1)	박소연 (창원여고 1)	김윤서 (창원여고 1)
친구들 모두 하고 싶은 일을 찾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데 주저함이 없었으면 합니다.	성적에 맞춰서 꿈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흥미를 찾고 싶어요.	꿈이 생기니까 꿈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 정말 소중한데요.	세상을 보는 눈을 키워서, 저게 꼭 맞는 길을 찾아내겠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지금이 행복합니다.

진로 선택을 강요하는 교실, 그렇지 못한 현실

우리 사회는 10대 때부터 100세 시대에 무엇이 되어 무엇으로 먹고살 것인가를 정하라고 강요한다. 하지만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 교실에서조차 진로의 방향을 정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다.

- 최희정** 이번에 수능을 치는 고3 학생들 중에서도 절반 이상 진로를 정하지 못했어요.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일관된 진로 선택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직 하고 싶은 일을 찾지 못한 거죠.
- 강민하** 저도 제가 어느 분야가 뛰어난지 살펴보고도 하고 관심 있는 직업을 찾아보기도 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직업을 탐색하기도 했지만 아직은 결정을 못한 상태예요. 지금도 여전히 꿈을 찾아나가는 중입니다.
- 박소연** 저는 어려서부터 피아노도 오래 치고 체육도 좋아해서 체대 입시도 준비했었는데, 지금은 딱히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열정이 있어야 꿈을 이룰만한 노력을 할 텐데, 아직은 제가 알고 있는 세상이 너무 좁은 것 같아요.
- 김윤서** 저 역시 좋아하는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딱히 없었는데 중학교 때 수학 선생님 덕분에 자신감도 생기고, 수학도 잘 하게 됐거든요. 교사라는 직업이 학생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교사가 꿈이 됐어요.
- 태초애** 저는 고등학교 들어와서 '진로와 직업' 수업을 통해 진로를 찾게 됐어요. 저는 영어에 관심이 많고 생명과학도 좋아해서 문과와 이과 성향을 반반씩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저의 성향과 맞는 과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진로시간에 학과 탐방을 하면서 언더우드 국제학부에 생명과학공학과를 만났고, 지금은 진학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는 중입니다.

학생들에게 진로 선택이 어려운 이유

학교에서는 중학교 때부터 자유학기제를 통해 진로 선택을 돕고 있는데, 정작 아이들은 진로 선택이 어렵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태초애 중학교 때 자유학기제를 했던 기억이 있기는 한데, 저뿐만 아니라 주변 친구들도 그냥 노는 시간, 자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몇 가지 직업을 체험하긴 했지만 형식적이었던 것 같아요.

박소연 저희들이 경험도 부족하고 평소 접하는 직업의 종류도 한계가 있다 보니 제가 원하는 직업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너무 성적이나 대학에만 집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김윤서 사회가 진로·직업 선택을 너무 빨리 강요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저희는 이제 열일곱이거든요. 아직은 이것저것 탐색해 나가는 과정이니까 그 과정까지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민하 우리는 지금까지 선생님이 가르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주입식 교육을 받아왔는데, 이제 와서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라니, 당연히 어렵지 않을까요?

최희정 우리 사회 시스템이 공부, 시험, 대학이라는 빗장으로 아이들을 가두는 경향이 있어요. 아이들에게는 성적보다 관심사, 호기심, 꿈이 더 중요하거든요. 빗장만 풀어주면 아이들은 오징어게임도 만들고 수소산업도 이끄는 위대한 인재가 될 거라고 믿어요. 아이들이 대학과 성적이라는 틀을 넘어서 진짜 하고 싶은 것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진로교육

그렇다면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진로교육은 무엇일까.

김윤서 저처럼 진로를 정한 경우에는 가고자 하는 학과나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박소연 성향이 비슷한 친구끼리 모듬이 되어 자기 흥미와 관련된 직업을 자세히 조사해 보고, 기회가 되면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면 좋겠어요.

태초애 저도 비슷한 생각이예요. 관심사가 같은 친구끼리 모여서 관련 분야를 깊이 조사한 다음 그걸 다른 친구들과 공유하면 우리가 아는 직업 세계가 좀 더 넓어지지 않을까요?

강민하 성적에 맞춰서 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흥미를 먼저 찾을 수 있는 수업이 됐으면 해요. 지금 선생님께서 하고 계시는 흥미 찾기 수업처럼요. 저는 진로와 직업 수업에서 자신을 사진으로 표현해보라 하셔서 '아직 피지 않은 꽃'을 선택했어요. 곧 피어날 희망이 있는 꽃이요. 우리들 속에 있는 아직 피지 않은 꽃이 '무엇'으로든 피어날 수 있도록 옆에서 어른들이 많이 응원하고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희정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진로교육은 직업을 넘고 대학도 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을 살아갈 역량을 키우는 거예요. 학생들이 인간으로서 자존과 역량을 갖추고 '위대한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진로진학상담교사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남대입정보센터 100% 활용하기

경남교육청은 최상의 대입 정보를 제공해 우리 학생들의 진로와 진학을 돕고, 교육수요자의 공교육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경남대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신 정보와 다양한 행사를 제공하는 경남대입정보센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경남대입정보센터 운영 현황

경남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경남대입정보센터는 2곳입니다. 창원에 있는 경남대입정보센터는 2016년 2월에 경남교육청에서 개소했으며, 2017년 3월 경남교육청 제2청사 2층으로 이전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부대입정보센터는 올해 3월 진주시 문산읍 예술교육원 해봄 1층에 개소해 경남 서부권역 학생·학부모·교사를 위해 다양한 진학 행사를 운영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남대입정보센터 운영 목적

학생·학부모·교사가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대입 정보를 제공해 진로·진학에 대한 건전한 의식을 함양하고, 단위 학교의 진학 역량 강화 및 교육수요자의 공교육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고민한 끝에 경남대입정보센터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또 대학-도교육청-고등학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최신의 대입 정보를 수집·가공해 단위 학교에 제공하고, 지역과 학교별 교육 환경을 고려한 진학 관련 자료 및 행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진학 협업 공교육 기관입니다.

경남대입정보센터 상담 인력

경남대입정보센터는 장학사 1명, 파견 교사 5명, 서부대입정보센터는 장학사 1명, 파견 교사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장학사와 교사가 함께 상시 전화, 방문,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기적인 상담 행사 주간에는 도내 현직 진학 전문 교사로 구성된 대학진학전문위원단 진학팀 50명이 참여해 진학 지도 경험을 바탕으로 최신의 대입 정보를 제공하는 맞춤형 진학 상담을 지원합니다.

경남대입정보센터가 제공하는 정보

경남대입정보센터는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상담 주간·진학설명회·교사 연수 운영, 진학자료집 제작과 배부 등의 방법으로 진학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 방문, 온라인(비대면 화상 및 질의응답 게시판 운영)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하고 있어, 수요자가 희망하는 방법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진학설명회는 온라인 사전 신청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대학별 전형의 주요 특징 및 선발방법, 대입 전형의 특징 등 진학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접할 수 있습니다. 또 학교 현장과 대학으로부터 수집한 진학 결과 자료를 분석한 책자를 자체 제작해 단위 학교로 배부하거나, 설명회에 참석하는 학생, 학부모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신청 방법 및 운영시간

상담은 경남대입정보센터 누리집(진학 상담 하위 메뉴-방문, 온라인상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상담은 해당 게시판을 이용한 비공개 질의응답 형태로 운영되며, 방문 상담은 이용자가 희망하는 장소(경남대입정보센터 또는 서부대입정보센터)와 날짜, 시간, 방법(대면 또는 비대면 화상)을 선택해 사전 신청하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방문·화상 상담은 휴일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온라인 상담 이용은 상시 가능합니다.



방문상담 전 준비사항



방문상담 전 준비사항

경남대입정보센터로 방문해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학생의 학교생활 정보가 많을수록, 효율적인 상담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 모의고사(전국연합학력평가, 수능모의평가) 성적표 등을 지참하면 좋습니다.

진학 관련 프로그램

경남대입정보센터는 연중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입설명회는 학생·학부모·교사 대상으로 사관학교, 국립특수대 과학기술원, 교육대학, 국립대 지역대학특성학과, 지역대학 의학계열·지역인재전형 등으로 세부화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사는 센터로 찾아오는 프로그램과 지역 및 학교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경남지역이 넓다 보니 진학정보 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나눔·소통·공감이 있는 진학설명회 및 진학 협업 프로그램으로 1년에 150개교를 방문해 최신의 진학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역별 이동상담실, 고3을 위한 찾아가는 권역별 모의면접 캠프, 경남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진학어울림, 학부모 진학공부방, 교사 진학공부방 등 다양한 행사도 진행해 경남의 모든 교육수요자가 소외 없이 진학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울러 고등학교, 대학 등의 다양한 자료를 수집·분석해 연간 40여 권의 진학자료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남대입정보센터 누리집 모든(MODUN) 활용법

경남대입정보센터 누리집은 진학정보를 제공합니다.

진학정보는 고입정보, 대학입시제도, 대입정보로 세분화돼 있으며 대입정보는 대입 뉴스, 대입 일정표, 전국 대학 위치도, 대학별 정보, 전형 정보 등 대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e-배움터에는 2022학년도 대입안내에서 대입과 관련된 2022 대입전형 이해와 경향 분석, 2022 수능 이해와 대입 준비 등 대학진학전문위원단 교사들이 강사로 참여한 15개의 동영상 이 탑재돼 있습니다.

대입전형별자료에는 학생부위주전형, 논술전형, 실기전형에 대한 자료가 수록돼 있으며, 문항분석실에서는 전국연합학력평가, 수능모의평가의 영역별 문항에 대한 자세한 분석자료가 시기별로 탑재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내용 중심의 진학 상담을 원하면 진학상담 메뉴에서 방문상담과 온라인 상담을 신청해 다양한 진학정보 제공과 궁금증 해소가 가능합니다.

행사신청 메뉴를 통해 경남대입정보센터에서 진행하는 모든 행사의 실시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공정성을 위해 선착순으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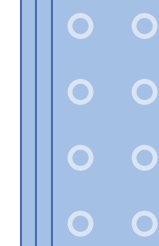
경남대입정보센터 상담 사례

사례1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A학생은 상담 전 지원대학 및 학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결정 없이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교과성적이 좋아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지원하려 했는데 상담 과정에서 외국 생활의 경험으로 영어 소통 능력이 뛰어나고 모의고사 성적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동안 희망하고 있었지만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기는 어려워 고민하고 있던 대학에 학생부종합전형을 추천했습니다. 이 학생은 합격해 만족스러운 대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2 특목고에서 일반고로 전학을 결정한 B학생은 일반고의 학교생활과 진학 준비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신청해 학생과 상담이 이뤄졌습니다. 내적 고민과 갈등이 많은 학생이었기 때문에 학생의 이야기를 주로 경청하는 방식으로 상담을 진행해 궁금해하는 부분을 해결해줬습니다. 이후 정기적으로 방문 상담을 이용하고 있으며, 전학한 학교에서 잘 적응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례3 수시모집을 앞두고 한 어머니께서 딸아이와 대학 진학 문제로 의견 차이가 있다며 방문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이 어머니는 자녀가 학생이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학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결과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다며 센터의 의견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센터의 분석 결과 학생이 지원하려는 대학학과로의 진학이 힘들다고 전하자 어머니는 자녀를 설득할 방법이 없다며 걱정을 했습니다. 센터에서는 자녀가 직접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며칠 후 혼자 센터를 방문한 학생에게 현실성 있는 방안을 제시했고, 학생이 이를 수용해 어머니와 큰 의견 차이 없이 수시모집을 통해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사례4 고등학교 1학년 C학생이 진학 상담을 하기 위해 부모님과 함께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 학생은 지난 겨울방학 때 예비 고1 학생을 위한 진학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중3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고등학교 생활과 대입전형 종류, 교과성적 준비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받아 도움이 됐다고 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기를 지나면서 약간 나태한 생각이 들어 센터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학생의 판단에 다시 상담한 경우였습니다. 이 학생은 정기적인 상담을 받아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고, 극복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고 했습니다.



전국소년체전
경남선수단 특훈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열리지 못했던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올해 종목별 겸임대회로 개최되고 있다. 종합대회가 아닌 각 종목 협회·연맹 주관 대회로 치러지고 있지만 좋은 성적을 내고자 하는 참가 선수들의 열기는 어느 해보다 뜨겁다. 경남선수단의 활약상을 한 컷 사진에 담아봤다.



제50회 전국소년체전 여자축구 초등부 결승에서 진주 남강초 축구부 연합팀 일원으로 참가한 거창초 6학년 백서영 학생이 드리블을 하고 있다



금메달 5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수확한 경남체고 역도부



금메달 1개와 은메달 2개를 획득한 김해 신어중 씨름부



개인 20m 금메달과 단체전 은메달을 딴 창녕초 양궁부 김성준 학생



학생·학교·지역사회가 만드는 하모니

산청 신안초 관악부

쿵짝쿵짝!

산청 신안초 솔빛관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진다. 관악부가 합주 연습을 하기 때문이다. 강당 안에선 높고 청량한 플루트와 낮고 처연한 색소폰이 서로 어우러진다. 호흡은 지공을 누르는 손과 하나가 되고 지휘봉을 바라보는 눈길은 동서남북의 소리와 얽힌다. 강당을 가득 메운 하모니 속에는 아이들도, 선생님도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된다.



오빠가 관악부여서 저도 들어왔는데 저는 오빠가 연주했던 튜바보다 더 큰 팀파니를 치고 있어요!



권신영(5학년)

오케스트라 안에서 우리는 모두 친구

신안초 관악부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56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윈드오케스트라다. 바람(호흡)으로 연주하는 관악기와 타악기로 구성된 악단을 의미한다. 역동적이고 힘찬 소리를 가지고 있어 누구나 쉽게 윈드오케스트라의 매력에 흠뻑 빠진다. 악기를 연주하는 관악부원들도 예외가 아니다.

“원래 클라리넷을 하다가 올해 팀파니를 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하게 됐어요. 처음 접하는 악기라서 긴장되는데 9월에 대회 나간다고 해서 잠을 설쳤어요. 그런데 시원한 소리가 나는 팀파니를 치면 스트레스가 사라져 대회서 연주하는 동안 떨면서도 엄청 즐거웠어요!” 권신영(5학년)

문보균 지도교사는 관악부 동아리 활동의 순기능을 강조한다.

“오케스트라는 악기 연주자들이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서로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함께 협주하고 협동하면서 인성을 자연스럽게 함양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처럼 신안초 관악부에는 구태의연한 위계질서나 선후배가 따로 없다.

“노는 걸 좋아하는데 오케스트라에 와서 다른 학년 애들이랑 같이 놀 수 있어서 좋아요. 저는 4학년 친구랑 많이 친해졌어요. 다들 부족한 게 있으면 그때 그때 말해서 바로 고쳐서 다같이 실력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형지안(6학년)



지난 9월 춘천전국관악경연대회 대상 수상

협주가 재밌다 보니 열심히 하게 되고 열심히 하니 매년 상복을 누린다. 학생 오케스트라 부문에서 신안초 관악부는 내로라하는 실력파다. 2002년 창단 이래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연속 전국관악경연대회 금상을 수상했고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관악경연대회 초등부 최우수·금상, 춘천관악경연대회 초등부 은상·금상, 대한민국 학생오케스트라 페스티벌 금상, 대한민국관악경연대회 금상 등 수많은 대회에서 입상했다. 비대면으로 합주 연습이 쉽지 않았지만 지난 9월 제18회 춘천전국관악경연대회에서는 초·중·고 전체를 통틀어 1등인 대상을 수상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회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은 있었지만 다들 원격 연습에 열심히 참여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해요. 여름방학 때 2박 3일 캠프를 갔는데, 집에서 쉬는 시간 빼고 계속 합주 연습을 해서 부원들 실력이 많이 늘었고요.” 권도근(6학년, 남자악장)

학교와 지역공동체의 든든한 지원

관악부를 지도하고 있는 최상호 지휘자는 아이들의 자신감을 수상 비결 중 하나로 꼽았다.

지휘자 선생님은 화를 잘 안 내셔서 좋아요



권도근(6학년)

저는 클라리넷인데 처음에 연주할 땐 바람을 부는 게 힘들었지만 잘 접할 수 없는 신기한 악기라서 재밌어요.



하지윤(6학년)

“비대면 상황이 점점 길어지면서 학생들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7월에 등굣길 음악회 행사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발휘하면서 자신감을 되찾은 것 같습니다.”

“아침이라 좀 부담스럽긴 했는데 학생들이 즐겁게 잘 들어줘서 무사히 끝낼 수 있었어요. 야외라서 소리가 잘 안 났지만 최선을 다했고 반응도 좋았기 때문에 부원들도 성취감을 얻었고요.” 하지윤(6학년, 여자악장)

두 번째 수상 비결은 학교의 적극적인 지원이다. 각종 대회 참가 등 행정업무를 처리해줘 관악부가 오케스트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한다. 세 번째는 지역사회의 각별한 관심이다. 산청군향토장학회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모두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관리단, 경남도교육청과 산청교육지원청 등 교육공동체도 힘을 보태고 있다. 이에 아이들은 오케스트라 활동에 열성적으로 임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열리지 못했지만 매년 여름밤 신안면 원지둔치에서 열리는 ‘한여름밤의 음악회’ 무대에 올라 지역주민들에게 신명을 선사했다.

“음악회 무대에서 떨리면 언니들이 괜찮다고 도닥겨주던 일이 생각나요.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던 것도 기억나고요. 코로나19가 얼른 끝나서 원지둔치에서 연주하고 싶어요.” 진서연(5학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 세상에 알려요”

밀양 삼랑진고 아도니스 - 반크



1991년 8월 14일, 고 김학순 운동가가 “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입니다”라고 공개증언했다. 일제강점기 일본군이 자행한 강제동원 성착취 문제를 만천하에 드러낸 역사적 사건이었다. 올해는 김 할머니의 증언 30주년이다. 정부에 등록된 생존자가 13명에 불과한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인 수요집회는 코로나19로 1인 시위, 온라인 연대 등 어렵게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 정부의 사과와 부당함을 규탄하기 위해 밀양 삼랑진고 ‘아도니스-반크’ 동아리도 온라인으로 연대하며 주한일본대사관 앞, 수요집회에 마음을 보태고 있다.



삼랑진고의 글로벌 사이버외교사절단

아도니스-반크(Adonis-Vank)는 우리나라 민간단체인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Vank: Voluntary Agency Network of Korea)에 속한 동아리다. 반크는 우리나라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온라인으로 한국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한국을 바로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외국 매체에 잘못 게재된 독도와 동해 등 표기를 올바르게 고쳐 달라 요청하는 것도 이들의 주 활동 중 하나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세계 시민 차원에서 제국주의와 전쟁, 그 이면의 참상을 함께 풀어가고자 하는 이슈다. 삼랑진고의 아도니스-반크는 2012년 만들어진 후부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 문제를 교내외 학생들과 공유하고 있다. 지난 2018년엔 배지를 제작해 판매한 수익금 전액을 대구에 있는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에 기부했다.

지난해엔 그림특과 키링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본교에 212번째 ‘작은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기도 했다.

올해는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 30주년과 8월 14일 위안부 기림일, 교내 ‘작은 평화의 소녀상’ 설치 1주년을 맞아 기념관 현장 답사 활동 및 사진전, 디자인 공모전 실시, 교내 계기 교육, 온라인 수요집회, 피해자 단체 후원을 위한 모금 등을 실시했다.





적성에 맞춰 4가지 분과 활동

동아리 활동은 크게 4가지 분과로 구분된다. 인문학분과, 반크(역사)분과, 통일분과, 심리분과인데 각 분과마다 저마다의 개성과 적성을 살린 학생들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교사나 사학도를 꿈꾸는 학생들은 반크(역사)분과, 통일분과 등으로, 심리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심리분과에 있다.



김민경 인문학분과장

“저희가 1년간 활동한 내용과 느낀 점을 책자로 만들어 볼 계획이에요. 기림의 날을 주제로 활동했던 것을 중심 해서 연말에 밀양시 도서관과 북트레일러를 제작해 보고 싶어요.”



조환이 심리분과장

“방학 때, 부산의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과 민족과여성역사관을 답사 하면서 촬영한 사진들을 분류해 ‘못다 핀 꽃들의 기억’ 사진전을 열었어요. 사회적 이슈를 다루면서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사건은 끝났지만 PTSD가 아직도 피해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패널을 만들어 학교 캠페인으로 전개하면서 PTSD의 심각성을 알리고 오해를 바로잡아 주고 있어요.”

세계시민으로서 우리가 할 일

아도니스-반크는 위안부 기림 주간 운영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문제 탐구를 통한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역량 강화’를 주제로 최고의 사이버 외교관 수료, 지역 도서관과의 인문학 및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 프로그램, 동북아역사재단 연계 에듀케이터 프로그램과 MOU를 체결한 탈북민 학교와의 교류로 세계 시민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김복윤 반크(역사)분과

“반크활동은 12단계가 있어요. 크게 보자면, 한국을 영어로 소개할 수 있어야 하고, 외국인 친구 나라에도 관심을 가져야 외신의 오기도 찾고, 펜팔로 우리나라를 홍보할 수 있어요. 세계시민으로서, 우리 모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한반도의 분단문제도 그냥 지나쳐선 안 돼요.”



유은승 회장

“여러 국제 이슈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문제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인권’입니다. 위안부 피해자는 우리나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동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도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일본이 국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방관하고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은 전 세계의 평화와 나아가 전 세계 사람들의 인권을 신장하는 데 걸림돌이 됩니다. 작은 학교, 작은 동아리에서나마 관심을 가지고 이 관심을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사람에게 알리면 전 세계의 평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아리 활동을

평화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삼고
과거, 현재, 미래 세대가 역사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노력하고 있는 아도니스-반크,
이들이 만들어 갈 세계가 기대된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삼랑진고 기림주간 수요집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Meta + Universe



메타버스에서 만나는 새로운 직업세계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이지만 친구들과의 만남은 여전히 활발하다.

현실 세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만남은 제한되지만 가상세계인 메타버스에서의 만남은 열려 있기 때문이다.

메타버스에서는 친구들과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춤도 추고 게임도 할 수 있다.

메타버스는 앞으로 더욱 확장되고 발전될 것이라고 하는데, 메타버스와 관련된 직업은 무엇이 있을까?

함께 들여다보자!



메타버스란?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 등을 뜻하는 영어 단어 '메타'(Meta)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의 가상세계를 가리킨다. 메타버스는 가상현실(VR, 컴퓨터로 만들어 놓은 가상의 세계에서 사람이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첨단 기술)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개념으로, 아바타를 활용해 단지 게임

이나 가상현실을 즐기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실과 같은 사회·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현실에서 불가능한 부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MZ 세대에겐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메타버스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외모로 바꿀 수 있고, 재능이 필요한 영역인 예체능계열에도 아바타의 도움으로 도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메타버스 관련 직업 종류

메타버스 관련 직업에는 대표적으로 가상현실 디바이스 연구 개발자, 메타버스 건축가, 메타버스 게임 개발자, 아바타 디자이너, 첨단 과학 기술윤리학자 등이 있다. 직업의 종류는 점차 다양해지는 추세이며,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 능력과 함께 예술적 감각, 인문학적 소양 등을 갖추어야 해당 분야에 진출하는데 유리하다.

가상현실 디바이스 연구 개발자

가상현실 디바이스 연구 개발자는 HMD(머리 착용 디스플레이)나 스마트 안경처럼 가상현실을 실현시키는 장치를 만드는 직업을 뜻한다. 가상현실 디바이스 연구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컴퓨터 공학이나 전기 전자 공학을 필수적으로 전공해야 한다.

메타버스 건축가

메타버스에서 다양한 공간을 설계하고 적절한 환경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가상 하늘과 가상 숲 등 자연환경은 물론 학교, 편의점, 백화점, 공연장 등 다양한 건축물도 만든다.

디자인 영역이 중시되는 직업으로 컴퓨터 프로그램과 공학 기술뿐만 아니라 디지털 설계 감각이 뛰어나야 한다.

메타버스 게임 개발자

메타버스 게임 개발자는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하는 게임을 개발한다. 세부적으로는 프로그래밍으로 게임 캐릭터와 게임 환경을 구현하는 게임 프로그래머와 게임 속 이야기를 만드는 게임 시나리오 작가, 게임의 원화를 그리고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하는 그래픽 아티스트, 게임의 음악을 제작하는 사운드 크리에이터, 게임 개발 전 과정을 관리하는 총감독, 게임의 홍보와 판매 과정을 담당하는 게임 프로듀서 등으로 나뉜다.

아바타 디자이너

메타버스 속 가상인물인 아바타를 기획하고, 의상과 아이템을 제작하는 일을 한다. 아이디어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스케치 실력과 색채 감각이 중요하며 다른 종류의 디자이너에 비해 트렌드 민감성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관련 전공으로는 애니메이션과 시각디자인과가 있다.

첨단 과학 기술윤리학자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윤리 문제가 부각될 것이다. '어떤 기술이 사회에 악영향을 줄 것인지', '인류에게 위협적인 기술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첨단 과학 기술윤리학자가 그 역할을 담당한다. 철학부터 법, 과학 등 다양한 학문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특정 기업의 연구원이나 정부기관, 세계과학기술윤리위원회(COMEST)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활동한다.



참고자료

어린이를 위한 가상현실과 메타버스 이야기(팜파스)
[네이버 지식백과] 메타버스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어린이를 위한 미래 직업 100(EKBOOK)

11월 환경이야기

지구를 위한 날! 달력에도 안 나오는 날!
우리 마음으로 새기면 지구를 지킬 수 있습니다.



11 NOVEMBER 2021

- 11. 5. 환경파괴 방지의 날
- 11. 11. 농민의 날
- 11. 마지막 주.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



이날을 기억해요

환경파괴 방지의 날(11. 5.)

전쟁과 무력 분쟁 중 국경을 초월해 발생하는 생태계 및 환경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2001년 11월 5일, UN 총회에서 지정한 날

‘전쟁은 환경에 대한 테러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은 심각하다. 미사일, 폭탄 등의 무기, 건물의 파괴와 화재 등으로 발생하는 대기오염, 인위적 폭발물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무력 분쟁은 사람의 생명뿐 아니라 자연환경까지도 위협한다. 이처럼 세계 전쟁으로 발생하는 각종 환경 파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환경파괴 방지의 날이 제정됐다.

농민의 날(11. 11.)

농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농업(農業)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법정기념일. 매년 11월 11일

도시화와 산업화로 우리나라의 농업과 농촌의 경쟁력은 날로 기울고 있으며, 농업 인구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농촌과 농민은 경제적인 논리로만 파악할 수 없는 역사성과 문화적 뿌리를 가지고 있다. 농업과 농업인의 위상을 높이고, 새 시대에 맞는 농정을 펼치면서 농업 발전을 모색하고자 하는 의도로 농민의 날을 제정하게 됐다.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11월 마지막 주)

상품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환경오염과 자원 고갈, 노동문제, 불공정 거래 등의 문제를 고발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캠페인은 1992년 캐나다에서 테드 데이브(Ted Dave)라는 광고인에 의해 처음 시작됐으며, 해마다 11월 마지막 주에 전 세계 도시에서 쇼핑객들이 그들의 소비행위를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집회와 거리공연, 퍼포먼스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에플다이어트 실천해요

11·12월은
안 쓰는 전기제품 플러그 뽑기 하는 달
꽃지 말고, 안 쓰는 전기제품
플러그는 뽑으세요.



교육 현장의 실천 활동 - 우리는 이런 활동을 했어요!

김해 내동초 생태체험 환경 동아리 실천 활동

김해 내동초 교사 석진수

교내 수목 조사와 생태지도 만들기 활동을 통해 학교 숲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동식물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의 생활 근거지인 가정과 학교, 마을에서 접하는 다양한 생태환경과 일상생활 속 환경문제를 이야기해보고 생태환경 활동을 통해 환경보호의 가치와 중요성을 이해했습니다. 바라보는 생태환경이 아닌 직접 만지고 체험하며 생태환경 감수성을 증진했습니다. 날이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를 직접 대면하게 될 학생들에게 환경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알려주고 지구 생태계가 조화롭게 유지되기 위해 앞을 실천으로 행하는 아이들이 되길 바랍니다.



전안초 기후 위기 대응 프로젝트 수업

창원 전안초 교사 조혜경

‘에코드림 교사동아리’에서는 기후 위기에 관한 책을 읽고 학년별 프로젝트 수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4학년은 아이들에게 플라스틱 줄이기 프로젝트 수업을 받았습니다. 플라스틱의 장단점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 나갈 문제를 인식하고 플라스틱 줄이기 주제로 광고지를 만들기 활동으로 학생들의 환경에 관한 인식을 전환하는 것에 중점을 뒀습니다. 이후 가족에게 플라스틱 줄이는 법 알려주기, 등굣길 쓰레기를 줍고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를 알리는 캠페인 활동도 병행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하나씩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배움이 실천이 되고 삶이 돼 우리 아이들이 푸른 지구에서 웃으며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지속가능발전 알리기 위한 마산용마고 환경 동아리 ‘시리어스’ 실천 활동

마산용마고 교사 김서호

환경 동아리 ‘시리어스’ 학생들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탐구활동을 1학기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영상 시청과 관련 자료 탐색 등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 인식했고, 사례 조사 및 주제 토론을 통해 보다 심도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학교 주변 탐색 활동을 통해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영상을 시청하고 관련 기관과 연계해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학교 공동체와 공유해 지속가능발전의 가치에 대해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우리 지구가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지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농부의 결혼식 1568년 114cm x 164cm 빈 미술사 박물관 소장

피테르 브뤼헬

16세기 네덜란드 화가

[PIETER BRUEGEL] 1520년경 ~ 1569.

글 경상남도교육청 학예사 유아름

네덜란드의 풍경화 전통이 정립되도록 크게 기여한 피테르 브뤼헬은 '농부의 화가'로 불리며 시골의 정겨운 풍경을 다룬 작품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과 자연을 조화롭게 구성하고 자연스럽고 깊이 있는 색채를 담아내 독자적인 회화를 구축했습니다. 그의 출생과 성장 등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지만 1551년 화가 협회에 등록된 기록에 따르면 1525년에서 1530년 사이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실내 모습을 근거리에서 담아냈고 독특한 대각선 구도와 강렬한 색채가 두드러지는 작품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농부로 가장해 시골의 결혼식에 참석해 지켜보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긴 식탁에 모여 앉아 음식을 먹으며 떠들썩한 분위기를 보아 피로연이 막 시작된 듯합니다. 화면 중앙의 화관을 쓰고 앉아있는 신부와 바로 옆 나이 든 부인과 노인은 그녀의 부모로 추정됩니다. 이와 달리 신랑은 누구인지, 이 공간에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술 새 없이 음식을 나르고 항아리를 술로 채우는 사람들과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 악사들 등 다양한 인물들의 익살스럽고 개성 있는 모습이 돋보입니다. 허기진 표정을 하고 있는 연주자, 손가락을 핥으며 바닥에 앉아있는 아이 등을 통해 순간의 심리상태를 전달하고자 했는데, 일부 비평가들은 아이의 행동을 배고픔에 대한 상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림 속에 암시적으로만 담겨있어 오늘날까지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수면시간 줄이지 말고 규칙적 생활습관 유지해야

수험생 건강관리



2022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힘든 입시 준비를 해야 했던 수험생들은 막바지 수능 준비에 여념이 없을 때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자칫 방심하면 건강 때문에 컨디션 조절에 실패해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부족한 수면 시간, 과도한 스트레스, 큰 일교차로 인한 감기, 독감 등 수험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

수면 관리 수능을 앞둔 수험생이 공부 시간을 늘리려고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은 잠을 줄이는 것이다. 하지만 잠을 자는 시간, 즉 수면 시간을 줄이기보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수면 시간을 줄여가며 공부하는 것이 오히려 학습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으며, 부족한 수면 시간으로 인해 다음날 피로도와 스트레스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수면 부족 상태가 지속되면 일정하게 유지해야 할 신체리듬이 깨지고, 낮에도 집중력이 떨어져 학습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수면 부족은 집중력 저하뿐만 아니라 두통과 식욕 부진, 영양 불균형, 자율신경 이상 등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다. 수험생의 경우 최소 5시간 이상 수면 패턴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수능 당일 최상의 컨디션을 발휘할 수 있다. 수면 환경 역시 중요한데 잠을 깊이 자기 위해서는 적당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환절기 감기와 독감 주의 수험생들이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은 감기와 독감이다. 우선 환절기에 주로 발생하는 감기는 발병 원인이 다양하지만, 대부분 큰 일교차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아침, 저녁으로 체온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옷을 입는 것이 좋다. 만약 감기 증상이 보인다면 증세가 악화하지 않도록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수분을 공급해줘야 한다.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라면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을 미리 피해야 한다. 감기와 마찬가지로 알레르기의 대표적인 증상인 코막힘, 콧물, 기침 등은 수험생의 집중력을 저하하는 가장 큰 원인이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독감 역시 11월에 전염성이 커지기 때문에 대비해야 한다. 보통 독감과 감기가 같다고 많이들 생각하지

만, 사실 독감은 감기와 다른 유행성 질병이다. 따라서 미리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 좋은 예방법이며, 독감 예방주사를 맞은 후에는 하루 정도 안정을 취해 주는 것이 좋다.

자세 및 근육 통증 관리 모든 수험생에게 마찬가지로 잘못된 자세는 어깨 통증뿐만 아니라 허리 통증까지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이전보다 늘어날 수 있다. 이때 장시간 앉아 있는 것은 어깨와 척추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50분 정도 앉고 10분 정도는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또한, 허리를 바르게 펴고 어깨 근육이 긴장되지 않도록 하며, 간단한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이 뭉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하는 긴장성 어깨 통증 역시 주의해야 한다. 긴장성 어깨 통증은 수험생의 강박감이나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어깨 결림 현상과 통증, 두통까지 유발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절대적인 안정을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지근한 물, 찜질 팩 등으로 어깨를 따뜻하게 해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으며, 만약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2~3일 정도 지속된다면 병원을 찾아 통증 원인을 찾고 치료받아야 한다.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가정의학과 장지용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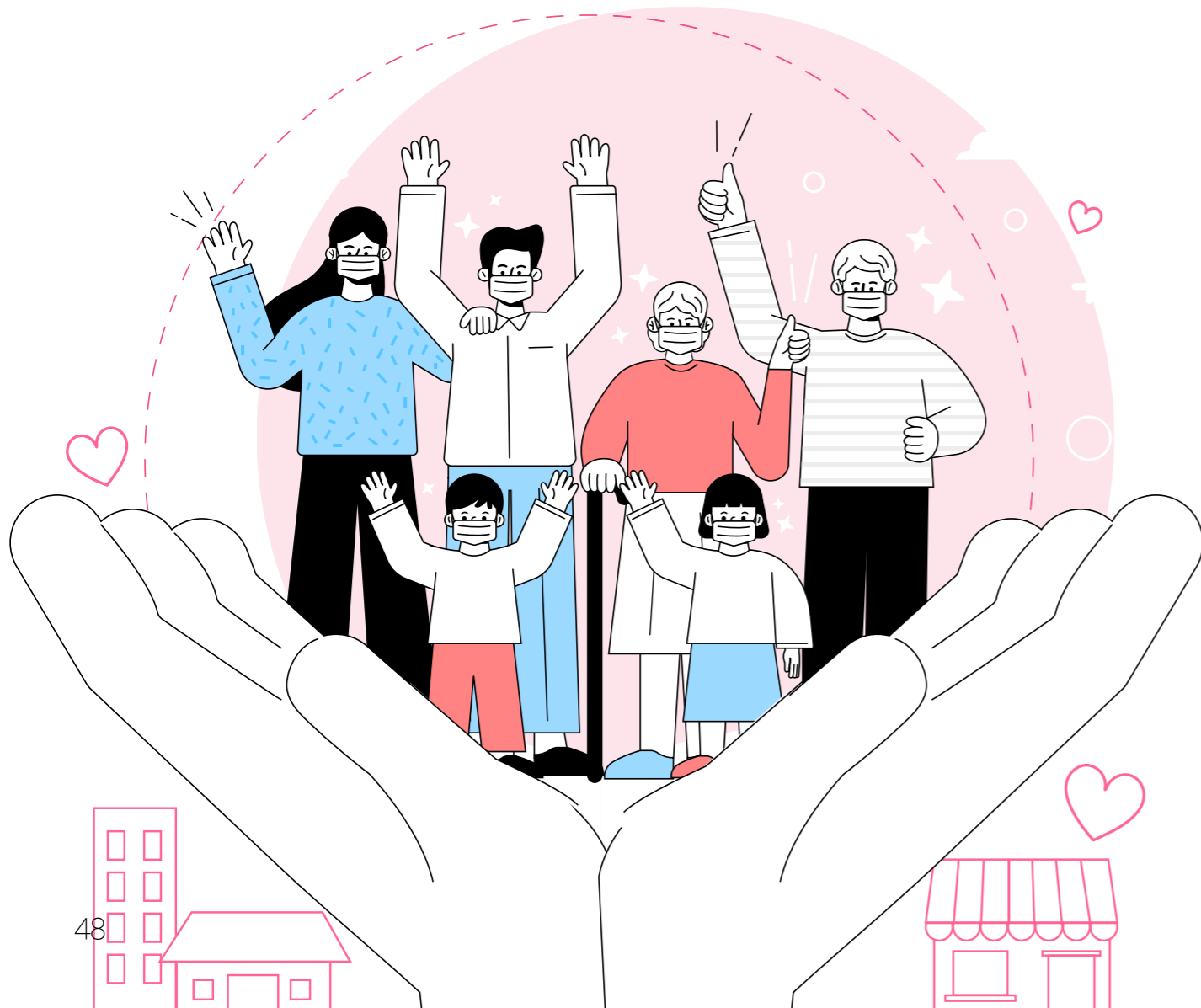


건강-코로나19 위드 코로나 대처

글 배해귀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마스크 벗어도 될까?

1년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가 붙으면서 우리나라도 이달부터 ‘위드(with) 코로나’로 불리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다. 우리 일상에도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도민들이 궁금해하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관한 Q&A(10월 15일 기준)를 준비했다.



Q. 위드 코로나가 무엇인가?

A. 위드 코로나(With Corona)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자가 격리,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같은 강제성 있는 방역 조치를 모두 해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모든 감염자를 관리하지 않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관리에 치중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이라고 표현한다.

Q. 단계적 일상회복의 기준은 무엇이며, 언제, 어떻게 진행되나?

A. 단계적 일상회복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을 기준으로 단계를 나누고 있다. 접종 완료율이 70%, 80%, 85%가 되면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시설 이용시간 제한, 대규모 행사, 사적 모임 등에 대한 방역 규제를 점차 완화하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지난달에 공식 출범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달 초에 로드맵을 적용할 예정이다.

Q.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

A. 단계적 일상회복이 진행된다고 바로 마스크를 벗을 수 없다. 단계적으로 점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며,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추구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단계적 완화의 가장 마지막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며, 마스크를 쓰는 것 만큼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방침이 될 것이다.

Q. 외국의 경우 위드 코로나 실시 후 어떻게 되었나?

A. 여러 국가가 높은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을 바탕으로 코로나19와 공존을 단행했다. 그 결과는 나라마다 다르다. 영국은 코로나와 공존을 선택한 지 4개월이 됐다. 거리 두기가 해제된 7월부터 코로나19 재유행을 맞았지만 위드 코로나 과정에서 일시적 확진자 수가 급증해도 의료체계 정비, 기본 지침 유지 등을 중심으로 치명률 관리로 체계를 전환했다. 싱가포르는 지난 8월, ‘뉴노멀 방식의 4단계 로드맵’을 발표해 방역 완화에 들어갔다. 재택 치료, 대규모 추적조사 최소화, 중증률 관리 등 추세 관리와 접종자 해외 여행 허용이 주요 내용이었다. 9월 말 이후 확진자가 다시 증가해 지난달 말까지 재택근무 의무화, 원격수업 재개, 사적 모임 제한 등 방역조치를 다시 강화했다. 독일은 접종자 중심 거리 두기 완화 방안인 ‘3G 규칙’을 적용했다. 백신 접종 완료(Geimpft), 완치자(Genesen), 음성 확인(Getestet) 등 세 규칙이 만족하면 특정 시

설 방문이나 행사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다. 독일도 7월부터 재유행이 시작됐으나 확진자 증가 폭은 다른 나라에 비해 크지 않다.

Q. 단계적 일상회복, 해외여행도 가능한 가?

A. 현재도 해외여행은 가능하다. 다만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해외여행 후 귀국한 뒤 2주간의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또 다수의 국가에서 미접종자의 경우 입국시 의무 격리 기간을 두고 있어 여전히 여행에는 제약이 따른다. 하지만 유럽(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독일, 체코, 이집트 등)이나 미국 등은 백신 접종 완료자는 여행이 가능하다. 접종 완료자에게는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입국 격리를 면제해 준다. 반면에 아직 자가격리를 해야 하거나 관광 목적으로 입국이 불가능한 나라들도 상당수 남아 있다. 동남아 국가들과 중국, 일본이 아직까지 자유로운 입국이 어렵다.

Q. 소아청소년과 임신부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위드 코로나를 위한 준비이지만, 부작용 때문에 걱정된다.

A. 12~15세에 대한 화이자 백신의 안전성은 16세 이상과 전반적으로 유사하게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고3 학생들의 예방접종 결과 이상반응 신고(신고율 0.45%)의 대부분(97.6%)은 두통, 발열, 메스꺼움 등 일반적인 반응이었다. mRNA 백신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발생 보고가 있으나, 대부분 경증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신부는 코로나19 감염 고위험군이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로 확진된 임신부의 위중증률은 같은 연령대 여성에 비해 6배 수준으로 높아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임신부 접종을 시행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연구에 따르면 임신부 접종자와 임신하지 않은 접종자와 이상반응 발생 양상은 유사했다. 또한 분만시 조산, 유산, 기형아 발생 비율도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임신부와 차이가 없었다. 오히려 임신부가 mRNA 백신 접종을 하면 코로나 감염이 줄어든다고 보고되고 있다. 예방접종을 통해 형성된 면역은 신생아에게 태반 및 모유 수유를 통해 전달되기도 한다.



‘아이좋아 경남교육’은
경남도청의 ‘경남공감’과 기사교류를 합니다.
더 많은 기사를 보고싶으시면
QR코드를 통해 접속바랍니다.

토박이말바라기와 함께하는 토박이말 나들이



배움책(교과서)에서 캐낸 토박이말(20)

1학년 국어 배움책(교과서) 여섯째 배움 마당은 '받침이 있는 글자'입니다. 162부터 165쪽에는 '구름 놀이'라는 애가락글(동시)이 나옵니다. 164쪽에는 '호랑이'가 나오는데 받침이 있는 말로 '어슬렁어슬렁'과 '어흥'이 보기로 나옵니다. 여기 나온 '호랑이'도 '대중말(표준어)'이긴 하지만 우리가 옛날부터 써 온 '범'이라는 말과 견주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호랑이'를 말집(사전)에서 찾으면 '범 호(虎)', '이리 랑(狼)'에 이름씨를 만드는 뒷가지(명사화 접미사) '이'를 더한 말이라고 풀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풀이가 더 있습니다.

고양잇과의 포유류. 몸의 길이는 2미터 정도이며, 등은 누런 갈색이고 검은 가로무늬가 있으며 배는 흰색이다. 꼬리는 길고 검은 줄무늬가 있다. 삼림이나 대숲에 혼자 또는 암수 한 쌍이 같이 사는데 시베리아 남부에서 인도, 자바 등지에 분포한다.

토박이말 나들이

옛날부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손수 만들어 써 오는 말이나 그 말을 바탕으로 새로 만든 말. 참우리말, 순우리말, 고유어라고도 함.



위의 한자 풀이를 보면 '호랑'은 '범'과 '이리'를 짜잡아 이르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잇과의 포유류로 몸의 길이가 2미터, 등이 누런 갈색이고 검은 가로무늬가 있으며 배는 흰색'이라는 풀이를 보면 우리가 흔히 '호랑이'라고 부르는 것은 '범'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범'이라는 토박이말을 두고 '범'과 '이리'를 짜잡아 부르는 말인 '호랑이'라는 말을 어린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164쪽에는 '호랑이'의 울음소리를 나타내는 '어흥'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말집(사전)에도 '어흥'을 찾으면 '호랑이의 울음소리'라고 풀이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옛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범'을 왜 '범'이라고 했을까요? 이런 물음에 갇음을 똑똑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지 모르지만 '동물 이름의 수수께끼'라는 책에는 '범'이라는 이름이 '범'의 울음소리에서 온 말이라고 했습니다. 옛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범'이 '버~엄'과 같이 우는 것으로 여기셨다는 것이죠. 저는 아주 그럴듯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호랑이'라는 말보다 '범'이라는 토박이말을 먼저 가르치고 배우도록 했으면 좋겠고 '범'은 '버~엄' 하고 운다고 가르치고 배우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토박이말바라기

일본어식 용어 이렇게 바뀌요



뜻풀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쓰는 모자

보기

오토바이를 탈 때는 반드시 안전모(←화이바)를 착용해야 합니다.



뜻풀이

윗옷에서 목둘레에 길게 덧붙여 있는 부분

보기

찬바람에 옷깃(←카라)을 세우고 총총걸음으로 걸었다.



경남교육가족에게 권하는 11월의 책

1 밝은 밤

최은영 지음 | 문학동네 | 2021

교육리더가 읽으면 좋은 책



“새비 너랑 있는 이시간이 아깝다.” 새비 아주머니는 한동안 아무 대답이 없었다. “아깝다고 생각하면 마음 아프게 되지 않잖아. 기냥 충분하다구, 충분하다고 생각하구 살면 안 되잖아? 기냥 너랑 내가 서로 동무가 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주면 안 되잖아?” 258p

백 년의 시간을 거쳐 나에게 도착한 두 여성의 우정 이야기

우리 조상들은 그 시대만의 아픔을 지닌 채로 삶을 묵묵하게 살아나갔다. 일제강점기, 6·25 전쟁 등의 암울한 사회 속에서 여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이혼의 상처로 힘들어하던 지연은 희령이란 지역에서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할머니와 우연히 마주치면서 증조모와 새비 아주머니의 각별한 우정에 대해 듣게 된다. 무려 백 년의 시간을 거스른 과거의 ‘나’의 이야기가 지연의 삶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다. 고통 속에 있을 때 곁에서 진정으로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소설이다.

2 나는 게임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동은 지음 | 자음과모음 | 2021

고등학생이 읽으면 좋은 책



플레이어는 게임 세계의 주인공 역할을 맡습니다. 어느 멋지고 잘생긴 주인공의 모험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이야기’를 펼쳐 나갑니다. 플레이어들은 모두 주인공이 되어 게임의 서사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됩니다. 42p

게임과 존재 사이 인문학적 고리 찾기

대중문화로 자리매김했음에도 게임에 따라붙는 부정적인 시선은 대부분 편견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게임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게임의 역사, 신화를 계승한 창의적인 스토리텔링, 미래세계 기반으로서 게임의 쓸모까지. 게임에 대한 인문학적 고찰을 통해 청소년들이 게임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이끈다. 재미로 하는 게임에서 의미를 찾고 새로운 관점으로 나만의 이야기를 펼쳐간다면 현실 세계에서 한 단계 레벨 업! 할 수 있지 않을까?

3 말을 깨는 시간

윤혜숙 지음 | 서해문집 | 2021

중학생이 읽으면 좋은 책



난 총칼로 하는 독립운동도 중요하지만 한글을 지키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일본말을 하고 일본 글자를 쓰면서 살아야 한다면 독립이 무슨 소용 있겠어. 118p

일제강점기 잃어버린 우리말을 되찾기 위한 ‘시골말 깨기 운동’

조선어학회의 사전 편찬, 배재고보 문예부의 교지 복간, 춘천고보의 상록회 사건이라는 역사적 사실 위에 ‘시골말 깨기 운동’에 나선 청소년들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펼쳐진다. 한 나라의 말은 그 민족의 얼이요 혼이라 힘주어 외쳤던 그들. 나라를 잃었지만 우리말 우리글만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이들의 신념과 행동은 묵직한 울림이 되어 가슴을 뜨겁게 한다. 이 책을 통해 누군가는 목숨을 다해 지키고자 했던 아름다운 한글을 지금 나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4 열두 살 장래 희망

박성우 글, 홍그림 그림 | 창비 | 2021

초등 고학년이 읽으면 좋은 책



“난 울고 싶을 때 울 거야. 슬픈 눈물을 실컷 쏟아 내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져. 기쁜 눈물을 실컷 흘리고 나면 기분이 맑아져. 나는 잘 우는 사람이 될 거야!” 57p

우리가 좇아야 하는 건 ‘직업’이 아니라, ‘꿈’이야!

장래 희망이 뭐냐는 질문에 곰곰이 고민해본다. 내가 잘하는 걸 떠올리거면, 해본 일보다 앞으로 경험할 일이 훨씬 많기 때문에 어렵다.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말하는 건 조금 쉽다. 나는 감동적인 일에 우는 걸 좋아하고 방귀를 참았다 날아오르는 상상을 하는 걸 좋아한다. 이 책은 그렇다면 “잘 우는 사람”, “엉뚱한 상상을 하는 사람”이 되면 된다고 말한다. 직업이 아니라 내 삶에서 중요한 가치인 ‘꿈’을 좇는 진정한 ‘장래 희망’을 알아가는 것. 삶의 방향을 찾는 진로 고민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5 산으로 올라간 백만 개의 굴

알렉스 노게스 글, 마이렌 아시아인 로라 그림, 권지현 옮김 | 씨드북 | 2021

초등 저학년이 읽으면 좋은 책



땅속에 묻혀 있던 굴이 우리에게 알려 준 지구의 비밀을 보세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지구의 노래를 조금 더 일찍 듣기 시작한다면 환상적인 산호초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몇 층 아래에 사는 공룡 가족의 발자국도 발견할 거예요. 39p

8,500만 년 전 굴은 어디에서 살았을까?

여기 바다가 아니라 산으로 올라 가버린 굴이 있다. 그것도 백만 개! 이 책은 왜 수많은 굴이 산꼭대기에서 발견되었는가 하는 의문에서 시작해 지층과 화석에 관해 이야기한다. 어린이들이 다소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 분야지만 좀 더 쉽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흥미로운 스토리텔링과 서정적인 그림, 그리고 권말에는 상세한 용어 설명을 덧붙였다. 아이와 어른이 함께 읽으며 지구의 역사를 알아가기에 좋은 책이다.



원더 Wonder



드라마
미국 2017. 12. 27.
전체 관람가

감독 스티븐 크보스키
출연 제이크 트렘블레이(어기 풀먼 역),
줄리아 로버츠(이자벨 풀먼 역),
오웬 윌슨(네이트 풀먼 역),
이자벨라 비도빅(비아 풀먼 역)
수상 2018 44회 새턴 어워즈(최우수 독립영화상)

‘어, 왜 헬멧을 쓰고 있지?’
영화 포스터를 보면 제일 먼저 헬멧을 쓴 아이가 눈에 띄고 곧 이런 생각이 든다. 헬멧을 쓰고 있는 아이는 올해 열 살인 어기 풀먼. 안면기형의 일종인 트레처 콜린스 증후군으로 성형수술만 27번을 해야 했고, 그 결과 다른 아이들과는 다른 특별한 얼굴을 가졌다. 그래서 집에서도 헬멧을 쓰며 생활하고, 엄마와 홈스쿨링으로 공부를 한다. 하지만 어기에게 더 큰 세상을 보여주고 싶던 어기의 엄마는 새 학기부터 학교에 다니는 것을 권하고, 밝고 긍정적인 어기는 헬멧을 벗고 낯선 세상에 첫발을 내딛기로 마음먹는다. 하지만 현실은 예상한 대로였다. 등교 첫날 어기의 얼굴을 보고 아이들은 괴물이라고 놀리거나 마치 전염병 환자로 여기며 가까이 가는 것도 싫어하는데...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지원군
여기는 평범하지 못한 얼굴 때문에 늘 헬멧 속에 자신을 숨겨야 했지만 늘 따뜻하게 다독여 주는 엄마와 유머러스한 아빠, 그리고 다정다감한 누나 덕분에 그 누구보다 씩씩하고 당당하며 긍정의 에너지가 넘친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다. 특히 학교에서 상처를 받고 온 어기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가족의 배려,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올바른 부모의 역할을 깨닫게 한다. 그래서인지 영화에 대한 이런 한 줄 평이 눈에 띄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꼭 봐야 할 영화이다’

여기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가족, 모두의 성장기
영화는 헬멧을 벗고 세상 밖으로 나온 어기가 용기 있게 사람들의 편견에 맞서면서 친구를 사귀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모습을 담는 동시에 어기를 둘러싼 주변 인물의 모습도 담고 있다. 어기가 태어나면서 꿈을 잠시 접어야 했지만, 최선을 다해 어기의 홀로서기를 도우면서 자기 일을 다시 시작하는 어기의 엄마, 동생 때문에 부모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친구와도 멀어져 외로움을 느꼈지만, 다시 친구와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는 누나 비아, 그리고 어기의 좋은 친구로 다가왔다가 잠시 어기에게 등을 돌렸지만 어기를 통해 진정한 친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잭. 이렇게 영화는 어기를 둘러싼 사람들이 각자 자신만의 어려움을 이겨내며 성장해가는 모습을 담고 있어 보는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품게 한다.

R.J.팔라시오의 소설 <아름다운 아이>를 원작으로 한 영화
이 영화는 2012년 미국에서 처음 출간되고 나서 전 세계 45개국에 출간되어 800만 이상의 독자들을 감동하게 한 동명 소설 <원더>를 원작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름다운 아이>로 출간됐는데 도서관 등에서 추천도서로 선정되면서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고 있다. 작가 R.J.팔라시오는 한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안면기형을 앓는 아이를 우연히 만났는데 그때 아들이 그 소녀를 보고 울음을 터트리는 바람에 깜짝 놀라 자리를 떠나야 했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탈리 머천더의

<원더>라는 노래를 우연히 듣고 이 책을 쓰게 됐다고 한다. 실제로 영화에서도 이 아이스크림 가게와 관련한 에피소드가 나오기도 한다. 또한 영화 마지막 장면에 작가인 R.J.팔라시오가 깜짝 등장하기도 하니 이 장면을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마음에 외닿았던 명대사
“어쩌면 그게 중요한 걸지도 모른다. 사실 난 평범한 애가 아니라는 것, 서로 생각을 안다면 깨닫게 될 거다. 평범한 사람은 없다는 걸. 우리 평생에 한 번은 박수 받을 자격이 있음. 내 친구들도, 내 선생님들도, 늘 곁에 있어주는 누나도, 늘 웃음을 주는 아빠도, 그 무엇도 포기하지 않는 엄마는 특히나 더 박수 받아 마땅하다. 나를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브라운 선생님이 말해준 마지막 격언과도 같다. 힘겨운 싸움을 하는 모두에게 친절해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 그저 바라보면 된다.”
학교생활을 훌륭하게 마친 어기가 졸업식에서 그해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주는 헨리워드비처메달을 받는다. 어기는 메달을 받고 모두에게 기립 박수를 받는데, 이때 흘러나온 어기의 내레이션이다. 세상에 모든 사람은 평범하지 않고 모두 기적 같은 존재들이라고. 편견에서 벗어나 시선을 조금 바꾸고, 작은 친절을 베풀면 다른 사람의 참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듯하다. 어느새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알면 더 재미있는 이야기 : 손튼 와일더 연극 <우리 읍내>
영화에서 누나 비아가 속한 연극반이 무대에 올린 연극 <우리 읍내>는 미국 극작가 손튼 와일더가 쓴 작품이다. 미국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풀리처상을 받기도 했다. 이 연극은 미국 뉴햄프셔주의 가상 마을 ‘그로버즈 코너즈’에서 일어난 일을 3막의 형식으로 보여주며, 우리가 일상이라 느끼는 평범한 시간이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다는 걸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작품인데 이 영화 <원더>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과 잘 연결되어 있다.

culture calendar

11

2021 November

- 창원도서관
- 마산도서관
- 김해도서관
- 마산지혜의바다도서관
- 김해지혜의바다도서관
- 유아교육원 진주체험분원
- 유아교육원 김해체험분원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운영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신청 및 문은는 각 기관 대표전화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SUN	MON	TUE
	<p>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월 생태체험활동 11.1~11.30(월~금) 10:00~14:40 도내 공.사립 유치원 만3-5세 유아 김해체험분원 홈페이지 로그인 후 신청 	<p>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눈이 번쩍 귀가 번쩍 신나는 동화구연 11.2(매주 화) 11:00 1층 유아자료실 3~4세 어린이집 및 유치원생
<p>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림책 읽어주는 사서 11.7(일) 14:30 1층 유아자료실 6세~9세 어린이 ● [성악공연] 비바 소프라노 11.7(일) 15:00 지혜마루 경남도민 		<p>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눈이 번쩍 귀가 번쩍 신나는 동화구연 11.9(매주 화) 11:00 1층 유아자료실 3~4세 어린이집 및 유치원생
<p>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가족 한 책 읽기 11.14(일) 10:00 3층 더배움 가족 ● [현악4중주] 현의 노래에 스미다 11.14(일) 15:00 지혜마루 경남도민 	<p>15</p>	<p>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림책으로 마음여행 12.4(토) 예정 1층 놀이꽃밭 초등1-4학년 11.16부터 접수 ● 눈이 번쩍 귀가 번쩍 신나는 동화구연 11.16(매주 화) 11:00 1층 유아자료실 3~4세 어린이집 및 유치원생
<p>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달마다 창작놀이터 11.21(일) 10:00~11:50 온라인 5~7세 유아 [연주공연] 클래식 기타 콘서트 11.21(일) 15:00 지혜마루 경남도민 편치니들로 작은 소품 만들기 11.21(일) 15:00 상상창작방 경남도민 	<p>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월 토요일 가족 체험의 날' 신청 11.22 10:00~11.24 17:00 진주체험분원홈페이지 경상남도 내 2015.1.1~2017.12.31일생 유아 가족 행사 12.4(토) 09:50~ 	<p>2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눈이 번쩍 귀가 번쩍 신나는 동화구연 11.23(매주 화) 11:00 1층 유아자료실 3~4세 어린이집 및 유치원생
<p>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인형극 피터팬 11.28(일) 11:00 지혜마루 어린이 및 보호자 	<p>29</p>	<p>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눈이 번쩍 귀가 번쩍 신나는 동화구연 11.30(매주 화) 11:00 3~4세 어린이집 및 유치원생

WED	THU	FRI	SAT
<p>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머니 이야기 보따리 11.3(매주 수) 11:00 1층 유아자료실 3~4세 어린이집 및 유치원생 	<p>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길 위의 인문학] 사람책, 삶이 예술이 되는 순간 11.4(목) 14:00 시청각실 중·장년층 ● 아장아장 도서관 첫걸음 11.4(목) 11:00 3~4세 및 동반 가족 ● 신난다, 그림책 11.4(매주 목) 16:00 	<p>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발! 도서관 탐험 11.5~11.26(매주 금) 10:30 5~7세 어린이집 및 유치원생, 초등 저학년 	<p>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요일 책동산 11.6(토) 14:00 유아 별관 I 회의실 토마토 그림책 놀이 11.6(토) 14:00 유아 책으로 소통하는 우리 가족 11.6(토) 14:00 별관II 세미나실 어린이 및 가족 ● 그림책으로 마음여행 11.6(토) 14:00 초등1-4학년 '더하는 인문학' 이정모 관장 초청 강연 11.6(토) 14:00 일반 ● [토요체험놀이터] 동굴동굴 귀여운 알밤비누 만들기 11.6(토) 1층 어린이 자료실 유아 및 어린이 대출회원 ● [국악공연] 소옥종류 11.6(토) 15:00 지혜마루 경남도민 ● 바깥도서관 가을 북크닉 11.6(토) 10:00, 15:00
<p>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머니 이야기 보따리 11.10(매주 수) 11:00 1층 유아자료실 3~4세 어린이집 및 유치원생 	<p>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난다, 그림책 11.11(매주 목) 16:00 	<p>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힐링 프로그램 '쉽이 있는 정원에 초대합니다' 11.12(금) 15:00~17:00 도내 공,사립 유치원 교사 	<p>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특별공연: 매직그림자쇼 11.13(토) 10:00 어린이 포함 가족 토마토 그림책 놀이 11.13(토) 14:00 유아 여행과 힐링 11.13(토) 14:00 청소년 및 성인 ● 경남 동네 여행 11.13(토) 14:00 3층 무학전당 일반 ● [인형극]빨간 모자 11.13(토) 15:00~ 3층 시청각실 가족 ● 바깥도서관 가을 북크닉 11.13(토) 10:00, 15:00 ● 토요일 가족나들이 생태체험활동 11.13(토) 09:30~12:00 경남 거주 만3~4세 유아와 가족 김해체험분원 홈페이지 로그인 후 신청
<p>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조곤한 낭독회 11.17(수) 11:00 ● 할머니 이야기 보따리 11.17(매주 수) 11:00 1층 유아자료실 3~4세 어린이집 및 유치원생 	<p>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난다, 그림책 11.18(매주 목) 16:00 	<p>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茶)와 함께 만나는 인문학 소담Ⅱ 11.19(금) 14:00 비대면(Zoom) 성인 	<p>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마토 그림책 놀이 11.20(토) 14:00 별관II 이야기놀이방 유아 여행과 힐링 11.13(토) 14:00 청소년 및 성인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 11.20(토) 14:00 온라인(zoom) 청소년 ● [2021년 저자와 함께하는 강연 릴레이] 11월 박균호 저자 초청 특강 11.20(토) 14:00 성인 ● 달마다 책놀이터 11.20(토) 14:00~15:50 온라인 8~10세 초등 저학년 ● 토요일 가족나들이 생태체험활동 11.20(토) 09:30~12:00 경남 거주 만3~4세 유아와 가족 김해체험분원 홈페이지 로그인 후 신청
<p>2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한 도서관 이용 꿀팁 11.24(수) 14:00 성인 ● 수요 음악회 11.24(수) 11:00 ● 할머니 이야기 보따리 11.24(매주 수) 11:00 1층 유아자료실 3~4세 어린이집 및 유치원생 	<p>2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신중년)의 품격 11.25(목) 14:00 신중년 ● [5060 행복+도서관 산책] 건강한 나, 행복한 나 11.25(목) 14:00~ 2층 구치보실 5060 세대 ● 영어랑 그림책이랑 11.25(목) 16:00 ● 신난다, 그림책 11.25(매주 목) 16:00 	<p>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사계절 생태체험 11.26(금) 9:00~16:00 신청 유치원 교실 함안, 창녕지역 공사립 신청 유치원 	<p>2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화인형극: 차들이와 바우의 모험 11.27(토) 10:00 별관 I 시청각실 어린이 포함 가족 여행과 힐링 11.13(토) 14:00 청소년 및 성인 ● '더하는 인문학' 박건호 작가 초청 강연 11.27(토) 14:00 3층 무학전당 일반
<p>● [체험]언니, 오빠 책 읽어주세요 11.6~11.27(매주 토) 10:30 1층 유아자료실 유아, 초등저학년 어린이</p> <p>● [체험]노래로 배우는 English 11.6~11.27(매주 토) 11:40 1층 유아자료실 유아, 초등저학년 어린이</p> <p>● '11월 토요일 가족 체험의 날' 11.6(토) 09:50~ 진주체험분원 경상남도 내 2015.1.1~2017.12.31.일생 유아 가족</p>			



핑크빛 낭만이 흐드러진 산책길 함안 악양생태공원

삼삼오오 모인 나들이객들이 온통 분홍빛으로 넘실대는 공원을 찾는다. 마스크를 꺾어도 이들의 표정에선 답답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위드코로나로 접어든 탓일까, 아니면 악양생태공원의 감성적인 흥취가 마음에 녹아든 탓일까. 여유롭게 산책하는 사람들을 따라 악양생태공원을 걸어본다.



지상에 떨어진 분홍빛 구름 ‘핑크몰리’

악양생태공원은 경남 함안군 대신면 하기2길 208-49 일원에 있다. 가을꽃이 흐드러진 악양독방과 남강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느긋하게 감상할 수 있는 곳이자 어린이 생태교육의 장으로도 좋은 곳이다. 상수리나무가 가득한 나무숲 아래 어린이 놀이시설이 제법 크게 설치돼 있고 너른 잔디밭에 있는 야외공연장, 자라나 마름 등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 생태연못이 있다.

무엇보다도 가을에 이곳 악양생태공원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핑크몰리’ 군락 때문이다. 코스모스며 구절초 등 꽃들이 공원 곳곳에 식재돼 있지만 해마다 10월부터 4,611㎡ 면적 가득히 피어난다. 공원 입구에서부터 핑크몰리는 존재감을 크게 내비친다. 지상에 떨어진 분홍빛 구름 같은 환상 속에서 나들이객들의 감탄이 터지고 스마트폰 카메라 셔터 소리도 그치지 않는다.

악양루에서 바라보는 노을이 절경

악양생태공원은 핑크물리 군락 이외에도 제법 볼거리가 있다. 악양생태공원은 처녀뱃사공노을길 제1코스로서, 조성된 산책로를 따라 강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악양마을 북쪽 절벽에 위치한 '악양루' 역시 만나게 된다.

악양루는 조선 철종 8년(1857)에 세운 정자로, 1992년 10월 21일 문화재자료 제190호로 지정됐다. 악양루 절벽 아래로는 남강이 유유히 흐르고 앞으로는 너른 들과 벼수면의 제방이 한눈에 들어온다. 강과, 들, 절벽 등이 어우러진 악양루는 얼마나 경치가 좋은지, 중국의 명승지인 '악양'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 전한다. 악양루의 진면목은 일몰 시간에 접할 수 있다. 하늘과 강이 별경게 물드는 낙조는 악양생태공원의 아기자기한 노을과 사뭇 다르다.



처녀뱃사공 줄배가 있는 생태연못

1959년 발매된 황정자의 '처녀뱃사공'은 현재도 꾸준히 지상파에서 흘러나오는 가요다. 함안 악양나루에서 한국전쟁 직후 군대 간 오빠를 기다리며 대신 배를 짓던 여동생들을 보고 영감을 얻어 탄생된 명곡이다.

악양생태공원에서는 이 처녀뱃사공 얘기를 쉽게 접할 수 있다. 공원 안쪽에 작은 조형물이 있는가 하면, 공원 입구 근처에 노래비(대산면 서촌리 산99)가 있어 공원을 오가는 길에 볼 수 있다. 또, 지난 10월까지만 해도 공원 안에 조성된 생태연못에서 처녀뱃사공 줄배 체험에 참여할 수 있었다. 지금은 체험을 운영하진 않지만 꽤 너른 습지 가운데 동동 떠있는 줄배는 가을 감성을 몽클하게 자극한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이때 슬쩍 한 곡을 청해도 좋겠다. 가을을 맞아 만개한 핑크물리와 아름다운 악양루, 구슬픈 처녀뱃사공 노래를 간직한 악양생태공원으로 올가을 나들이 떠나보는 건 어떨까.

“아이들 성장에 체육 필수 강당 등 체육시설 확충을”



경상남도의회 제2부위원장 이종호 의원 (김해2)

이종호 의원은 도의회 후반기 제2부위원장으로 경남의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정치인의 가장 큰 덕목은 ‘약속’이라고 생각하며 처음 내 걸었던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이 의원을 만났다.

Q. 제11대 도의회 후반기는 코로나19를 비롯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2부위원장으로 남은 임기 동안 어떻게 의회를 이끌어갈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A. 11대 후반기는 의장 선거 과정에서 시끄러운 일이 있었고 코로나19가 겹치면서 매우 힘든 시기였습니다. 또한 도지사 부재로 인한 행정 공백이 우려되는 등 경남도정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 도의회 제2부위원장으로 해야 할 일을 미처 다 하지 못한 것 같아 무척 아쉽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11대 의회 마지막 시간은 여야 간 협치를 잘 끌어내 도민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도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Q. 교육정책 중 특별히 관심 있는 정책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A. 현재 경남지역에 있는 초중고 중에서 강당이 없어 체육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가 있습니다. 제 지역구인 김해 영운중학교에도 강당이 없어 비가 오는 날이나 한겨울, 한여름에는 체육 활동이 힘든 상황

입니다. 아이들의 성장에 체육이 매우 중요한 만큼 체육 시설 확충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같은 하늘 아래 자라나는 아이들이 교육 시설의 불평등 없이 즐겁게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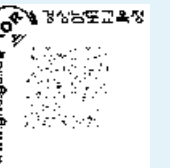
Q. 김해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김해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A. 제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서부청사 공론화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온 보건환경연구원 이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김해는 공단지역으로 7,530개가 넘는 공장이 있는 만큼 보건환경연구원 본원이 김해로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것이 경남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2024년 김해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제105회 전국체전’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개최지 선정 과정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만큼, 김해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이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힘을 쏟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11월 1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에게 격려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면과 비대면을 오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노력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성적을 거두시길 바라며, 원하는 학교에도 진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수험생 여러분, 모두 파이팅!



의정뉴스

1

경상남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개최
5분 자유발언 실시, 조례안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 등



경상남도의회(의장 김하용) 제389회 임시회가 10. 12.(화) ~ 10. 21.(목)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송순호 의원 「도립대학의 무상교육 실시를 촉구하며」 등 16건의 5분 자유발언 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체형 불균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5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2

교육위원회, 학교 밖 청소년
재난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송순호)는 제389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해 「경상남도 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심사해 전원 원안가결했다. 특히 조영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고마워요 사랑해요 말해줘요

옆에 있어 고마운 사람, 다시 보기 어려워 그리운 사람들에게 마음톡을 보내보세요.
친구, 가족, 은사님 등에게 말로 꺼내기 어려운 마음을 대신 전해드립니다.

운동장에서

오래전 근무하던 학교를 찾았다. 벌써 이십 년이나 지났지만 시골의 작은 학교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휴일인지라 학교는 텅 비어있고 운동장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철봉대 아래의 모래를 한 움큼 쥐어본다. 햇살을 품은 모래가 따뜻하다. 손에 있던 모래알이 스르르 빠져나가고 손에는 반짝이는 모래알의 흔적만 남아있다. 아이들의 반짝이던 눈동자가 떠오른다. 순간 운동장 구석에서 아이들의 함성이 들린다.

운동회날이다. 오늘은 마을의 잔치날이다. 마을의 유지들은 다 모였다. 면장, 노인회장, 파출소장, 우체국장, 이웃 학교 교장까지. 운동장 구석에 걸린 커다란 가마솥에서 돼지국밥이 끓고 있다. 도마 위에는 갓 건져낸 먹음직스러운 수육이 막걸리와 함께 사람들을 유혹한다. 일찍 술에 취한 동네 어른의 얼굴이 벌써 빨개졌다.

운동회 시작을 알리는 총성이 울리면 아이들의 눈동자는 더 반짝거리고 목청에는 더 힘이 들어간다. 맨손 달리기는 아이들의 실력 차이로 어느 정도 등수가 정해져 있다. 장애물 경기는 북불북으로 달리기를 잘 못 하는 아이들도 등수에 들 수 있는 종목이다. 학부모 달리기 때는 왕년의 달리기 실력만 믿고 넘치는 승부욕에 빨리 달리려다 넘어지는 사람도 있다. 넘어진 사람은 다친 것보다 창피함이 더 큰지 얼른 일어나 다시 달린다.

노인 경기도 있다. 마을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뉘싯대를 들고 대어를 낚으러 간다. 커다란 통속에 숨어있던 아이가 낚싯줄에 여러 가지 물건들을 달아준다. 담배, 소주, 양말, 고무장갑 등이 올라올 때마다 노인들의 웃음소리가 커져간다.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시는 분들도 있다. 모두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고 동심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건 동년이 아니라 동심'이라는 말이 생각났다.

6학년 경기 중에 '손님 찾기'라는 경기가 있다. 자기가 주운 종이에 적혀있는 사람과 손을 잡고 운동장 한 바퀴를 돌아 결승선을 통과하는 경기이다. 안경 쓴 사람, 모자 쓴 사람, 빨간 옷을 입은 사람, 각 학년 선생님, 마을 유지들의 이름이 적혀있다. 나는 6학년 선생님을 찾는 아이와 손을 잡고 힘껏 달려 일등을 했다. 곧이어 모자 쓴 사람을 찾는 아이와 운동장을 한 바퀴 더 뛰었다. 세 번째로 흰 옷 입은 사람으로 한 바퀴를 더 뛰고 나니 입에서 단내가 나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다음번 아이가 안경 쓴 사람을 찾기에 재빨리 안경을 벗어서 호주머니에 넣었던 기억에 슬며시 웃음이 난다.

독자후기



아이좋아 경남교육을 항상 접하긴 했는데 이렇게 알찬 내용이 가득한지를 왜 알지 못했을까요?

이번에 기회가 되어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겨 읽으며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학교의 이모저모를 상세히 알려주셔서 좋았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친구 3명이 함께 UCC 공모전에 도전, 우수상을 수상해 학교의 후배들을 위해 상금을 기부한 창원 응천고 학생들의 이야기. 다른 학생들에게 본보기가 될 듯합니다. 그리고 운동회 어제와 오늘 사진을 보며 타임머신 여행을 하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만큼 잠시 추억에 빠져보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직업 소개를 하는 전문가 인터뷰도 앞으로 계속 연재하면 학생들의 진로 선정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듯합니다.

정연희(거창 양양중학교)



아이좋아 경남교육 9월호를 읽으면서 환경의 소중함과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소중한 지구를 지키는 '탄소 중립', 환경도 지키고 건강도 챙기는 채식 급식, 미래 직업-스마트팜 전문가의 내용이 참 좋았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기후 변화로 인한 천재 지변들을 보면서 환경의 중요성에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제는 정말 우리의 실천이 필요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가져오겠지요.

변지윤(김해 석봉초등학교)

Quiz Quiz

아이좋아 경남교육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 낱말퀴즈

1. 학생·학부모·교사가 만족할 수 있는 대입 정보를 제공해 진로·진학에 대한 건전한 의식을 함양하고, 단위 학교의 진학 역량 강화 및 교육수요자의 공교육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경남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명칭은?

2. 경남 밀양에 전국 처음으로 개장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야외 체험공원은?

3. '농부의 화가'로 불리며 시골의 정겨운 풍경을 다룬 작품을 많이 남긴 16세기 네덜란드 화가는?

4.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은?

5. 전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환경 파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제정된 날은?

10월 호 정답: 1.안전아이로 2.신조어 3.장 프랑수아 밀레 4.요잠혈 5.반려동물

10월 호 정답자: 창원 상남초 송지후, 진해남중 강민수, 거제 신현중 안수정, 함안 호암초 김하령, 진주 반성초 황현호



독자기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자유기고 '추억의 편지', '보고 싶다 친구야', '보고 싶어요 선생님', '우리 아이 성장 이야기', '나의 학창시절' 등

독자후기 <아이좋아 경남교육>에 바라는 점, 좋았던 점, 아쉬운 점 등

형식 자유(시, 수필, 편지글 등)

제출기한 11월 19일까지

경상남도교육청으로 도란도란 독자기고와 독자 후기, 낱말퀴즈 정답을 보내주세요.

이름, 연락처, 소속(교직원 및 학생인 경우)을 기재해주시면

채택된 분께 2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경상남도교육청 홍보담당관 (51430)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41

이메일 : gne8@hanmail.net

전화번호 : 055-278-1784

경남교육청 소식과 정보를 SNS와 뉴스로 만나보세요!

www.gne.go.kr/401

9350602 848404

경남교육 SNS

- 경남교육 정책 및 주요 행사 실시간 안내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스토리채널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경남교육뉴스

- 경남교육청의 다양한 행사와 소식을 담은 뉴스
- 경남교육청 홈페이지와 경남교육청 유튜브에서 시청 가능



아이좋아 경남교육 매거진

- 연 12회 발행하는 무료 월간지
- 구독 및 신청 경남교육청 홈페이지 ▶ 매거진 구독 신청하기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마음껏 발휘하세요
응원합니다

